

## 24장. 두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

24장은 여고냐[고니야, 여호야긴]가 597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보여 주신 환상이다. 21장은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24장은 시기적으로 10년 앞선 때의 기록이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환상은 사람의 일상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는 것은 도덕적인 자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경륜과 관련된 것이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희망적이고 좋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좋은 무화과’이다.

잘 익은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들이다.

반면 가나안 땅에 남아 있거나 이집트로 도망한 자들은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다.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에 포함되지 않고 멸절될 것이다.

### 24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와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신 때는 언제입니까? (1절)
2. 1)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본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까? (5절)  
2)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7절)
3. 1)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본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까? (8절)  
2) 그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10절)